



최근 자연재해 발생 및 보상 현황

박정희 선임연구원

2016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2,100억 달러를 기록함. 2000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평균은 1,740억 달러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됨.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보상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엘리노 현상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 구제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 2016년 세계 자연재해와 관련한 경제적 손실은 2,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에 기인함.¹⁾
 - 단일 규모별로는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380억 달러)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으며, 중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280억 달러), 미국 매튜 허리케인(150억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됨.²⁾
 - 유형별로는 홍수가 620억 달러로 최대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후 지진(530억 달러), 악천후(320억 달러), 열대성 저기압(300억 달러), 가뭄(210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실이 약 1,160억 달러로 미국(580억 달러), 유럽·중동·아프리카(190억 달러), 북미·중남미(170억 달러) 지역을 합한 것보다도 많았음.
 - 재해 관련 사망자 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830명을 기록해 전체 대비 약 5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16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평균적으로 1,740억 달러였으며,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하였으나 증가세로 전환됨.

1) Aon Benfield(2017. 1. 17), “2016 Annual Global Climate and Catastrophe Report”를 참조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추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보험보상액(2016년: 540억 달러)은 민간보험회사와 정부지원(government-sponsored programs)의 합계임.

2)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7명, 중국 양쯔강 유역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475명, 미국에서 9월 28일부터 열흘간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05명임.

- 2000년 이후 연도별 자연재해 손실 규모는 2011년 4,710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2001년 최저 손실규모인 660달러에 비해 약 7배 수준임.
 - 동기간 최대 손실 재해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2,100억 달러)이었으며, 이후 2005년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1,250억 달러),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850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보험보상액은 피해액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670억 달러를 기록해 동일본 대지진(350억 달러)보다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보상 규모는 지역과 재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험으로 구제받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지역별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44건, 미국 66건, 유럽·중동·아프리카 63건, 아메리카 42건 등 총 315건으로 집계됨.
 - 이는 2000~2015년 평균 발생건수 271건보다 16.2% 높은 수치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해건수는 평균 발생건수보다 34.6% 증가하여 미국과 유럽·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 등(각 10% 이상)에 비해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함.
 - 지역별 보험보상률³⁾의 경우 북아메리카(54%), 오세아니아(40%), 유럽(32%) 등이 2016년 세계 평균 보험보상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시아 지역은 11%에 불과한 수준임.
 - 지난해 10대 자연재해 중에서 보험보상률은 유럽에서 발생한 홍수와 캐나다의 산불이 60%대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허리케인 매튜와 홍수가 30%, 일본 지진이 14% 수준임.
 - 반면, 중국의 기뎜과 홍수로 인한 보험보상률은 각각 3%와 4%에 머물러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엘니뇨 현상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 구제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kiri](#)

3) Munich Re(2017. 1. 4), “Natural catastrophe losses at their highest for four years”를 참조하였으며, 지역별 보험보상률은 지역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총손실액 중 보험으로 보장된 비율을 계산한 것임.